	촬영 구성안	오늘의 배움 - 수학의 벽을 넘다! 베블렌 수학학원 편	
		촬영 일자	2026년 4월 16일 (목)
		방송 일자	2026년 5월 중

► **촬영 장소 : 베블렌 수학학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22-1번지 동성빌딩 2층)*

►

► **촬영 내용**

***오후 2시 30분**
- 촬영팀 학원 도착 및 카메라 세팅

***오후 3시 ~ 오후 4시**
- 초등부 수업

***오후 4시**
- **고등부(고3) 학생들 오기 시작**
- **전부 도착하면 오후 6시**

(개별 과외 느낌으로 학교가 끝나는 대로
다들 각자 와서 각자 진도 나가는 형식)

***오후 5시 30분**
- **국제 학교 수업**

(학생, 담당 선생님이 인터뷰는 원치 않아서
영어로 수업하는 모습 보여주고
원장님 인터뷰로 간단하게 설명)

1. 프롤로그 - 수포자들의 길을 열다!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 SK

뜨거운 대한민국의 교육열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과목
수학!

초, 중, 고 수포자 통계 CG
(초6, 중3, 고2 본인을 수포자라고 생각하는 통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그 열기에
수학을 포기하고 있다!

강의하는 원장님
- 1:1로 봐주고
- 학생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수학을 포기한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곳이 있다?

2. 학원이지만, 과외처럼 1:1 수학학원

학원 외경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은
서울시 서초구의 한 수학학원!

내부 들어가는 ~ 교실 풍경
- 교실에 앉아 있는 초등학생들

문제 푸는 학생들
- 수업이라기에는 고요한 분위기

그런데... 지금 수업 중인 거 맞죠?

아이들 문제 푸는 모습
~ 한 명, 한 명씩 보는 원장님

피디/ 지금 자습 시간인가요?

원장/ 아뇨. 지금 수업 시간 맞습니다.

피디/ 오, 수업이라기에는 좀 조용한 느낌이 드는데요?

원장/ 아, 학원이기는 하지만
같은 학년이라도 아이들마다
수학을 푸는 능력에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도형과 관련된 문제를 어려워한다면
또 다른 친구는 그래프로 된 문제를 어려워하는 식으로
각자 다 다르거든요.

수학 문제 푸는 아이들
- 같은 학년임에도 다른 문제를 풀고 있는

원장/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같은 학년이라도
한 명, 한 명 맞춤형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풀고 ~ 질문하는 학생들

원장/ 잠시만 OO이 먼저 설명해주고
ㅁㅁ 설명해줄게, 다음 문제 풀면서 기다리고 있어.

학생 옆에서 같이 문제 풀이 해주는

원장/ 어떤 부분이 막힌 것 같아?
학생/ 여기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원장/ 아, 여기? 여기부터는 ~ (수학 내용 설명하는)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서 ~ 수업하는
(살짝 여기저기 바쁜 느낌으로)

피디/ 아니, 원장님 한 명 한 명 봐주기 힘드실 것 같은데
차라리 칠판 수업으로 하면 더 편하지 않아요?

교실 앞 칠판

피디/ 저기 칠판도 있는데

원장/ 아, 사실 저는 풀이가 긴 설명이 필요한
고등학생들 외에는 최대한 칠판 수업은 짧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피디/ 왜요?

원장/ 칠판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 개념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개념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 아이들 귀에는 안 들어오거든요.
저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 개념이 담긴 문제를 많이 풀게 해서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보는 아이들

또한 수학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
같은 학년이라도,
실력에 맞는 교제와
시험을 본다는데요.

테스트 채점하고 ~ 칭찬해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원장/ 저번에 이 유형 어려워하더니
이번에는 잘 맞았네? 잘했어.

학생/ 3번 문제는 저번에 틀렸는데 또 틀렸어요.

원장/ 괜찮아. 다시 설명해줄게.
맞을 때까지 설명해주면 되지.

테스트 후, 오답 풀이해주는 원장

아이들에게 절대
화를 내지 않는 것 또한
그의 철칙이랍니다.

원장/ 수학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지루한데
선생님까지 틀렸다고 뭐라 하거나 화를 내면
아이들이 수학을 싫은 거, 무서운 걸로 인식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 화를 내지 않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아이들한테도 100번 몰라도 된다 101번 내가 설명해주겠다

얘기를 해요.

문제 풀고 ~ 열심히 질문하는 학생들
학생 INT

피디/ 여기 학원 다니면서 수학 배우는 거 어때요?
학생/ 재밌어요.
피디/ 진짜 재밌어요? 수학이?
학생/ 네 퀴즈 푸는 거 같고 재밌어요
피디/ 원래 수학 좋아했어요?
학생/ 아뇨 원래는 어려웠는데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재밌어요.

3. 수학 잘하는 방법, 노트 두 권이면 된다?

고등학생 수업 시간
- 칠판으로 설명하는 원장님 (연출)

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후,
고등학교 수업이
이어지던 그때

설명 후 ~ 문제 풀기 시작하는 학생들

학생들 책상 위, 노트가 두 권씩 올라가 있는 CU

이상한 점 발견!
약속이라도 한 듯
책상 위에 노트가
두 권씩 올라가 있다?

피디/ 이 노트는 뭐예요?
원장/ 아, 그것도 제가 강조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노트가 꼭 두권 있어야 해요.
피디/ 두권이나요? 왜요?

두권의 노트 펼쳐서 보여주는
- 하나는 낙서처럼/ 하나는 깔끔하게 정리된

원장/ 보시면 수학 문제집은 풀이할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애들이 문제집에 풀이를 하다보면
공간이 적으니까, 소심해지고 마음껏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껏 문제를 풀 수 있는
막 풀이용 노트를 한 권 가지고 다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깔끔하게 정리 된 오답노트

원장/ 이건 제가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의 개념을 정리해둔
오답 노트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 노트,
문제의 개념을 다시 알고, 복습하고 싶을 때는
이 오답노트를 사용해서 총 두 권 사용하게 합니다.

피디/ 그런데 이 오답노트를 대신 정리해주시는 거예요?

원장/ 사실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시켰는데요.
문제 풀기 바쁘다보니 오답노트 정리까지는 버거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편하게 볼 수 있게 제가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학생들 1:1로 봐주는 원장

고등학생 INT

실제로 입시 전쟁에 뛰어든
고등학생 아이들.

아이들에겐 이곳의 방식이
잘 맞을까?

피디/ 어때요? 여기 학원 다니고 좀 수학이 쉬워졌어요?
학생/ 네 사실 제가 수학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었는데
여기 다니면서 좀 재미가 있다는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성적도 자연스럽게 올라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실

- 영어로 수학 수업 진행하는

영어로 설명하는 강사 ~ 대답하는 학생들

- 문제집도 전부 영어

아니,
수학학원에서 갑자기 웬 영어?

피디/ 아니, 원장님 영어 학원도 하시는 거예요?
원장/ 아뇨 지금 수학 수업 하는 건데요.
저희가 국제 학교 학생들이 다니다보니
한국어로 영어를 가르치면 표현에 대한 문제나
개념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국제 학교 반은 영어로 수업 하고 있습니다.

4. 수학을 사랑한 원장님

수업을 마친 후, 책상에 앉아 업무 보는 원장님 (연출)

피디/ 수업 끝난 후에도 바쁘시네요?
원장/ 네 오늘 애들 테스트 본 거랑 오답 풀이
정리 좀 하고 있었습니다.
피디/ 원래 이렇게 꼼꼼히 다 봐주시는 거예요?
원장/ 네 예전에는 대형 학원을 운영 했어서
이렇게 일일이 못 봐줬었는데
지금은 소규모로 운영 하고 있다 보니
가능하더라고요.
피디/ 예전에 대형 학원을 하셨었어요?
원장/ 네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대형학원 운영 다시 원장님 사진

학원 건물만 6개가 될 정도로
크게 운영 했던 대형 학원

원장/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니,
저도 다시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학원에서 손을 떼고
저도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 거죠.

업무 보는 원장 INS

그렇게 수학과 박사 학위 취득 후
다시 현장에 돌아온 건데요.

원장님 찾아온 제자들 (음료 들고)

제자/ 선생님, 저 왔어요

반겨주는 원장님

원장/ 어, 왔어?

반갑게 인사하는 두 사람

피디/ 누가 오셨나봐요?
원장/ 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오늘 지나가다 잠깐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피디/ 아, 여기서 배우셨구나
학생/ 네 안녕하세요.
원장/ 대학은 잘 다니고 있어?
학생/ 네 덕분에 잘 가서,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담소 나누는 원장님과 제자 ~ 질문하는 피디

피디/ 원장님은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학생/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 분
(실제로 성적이 올랐던 이야기)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마무리 (에필로그 느낌으로)

에필로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수학의 재미를
알려주는 교육법!

앞으로도 VJ특공대가 응원한다!